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12. 23.(목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기업성장지원팀	담 당 자	• 팀장 이중기, 사무관 박지은, 주무관 김남우 • ☎ (044) 201-3264, 4743	
보 도 일 시	2021년 12월 24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4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교통 혁신펀드로 유망 중소기업 키운다

- 제2호 176억 자펀드 결성... 27년까지 총 3천억 펀드 조성 계획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「국토교통 혁신펀드」 제2호 자펀드를 결성하였다고 밝혔다.
 - 지난해 9월에 결성한 제1호 자펀드(패스파인더 국토교통혁신 투자조합) 170억 원에 이어, 제2호 자펀드(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)는 정부 출자금 100억 원과 민간출자금 76억 원으로 총 176억 원 규모로 조성하였다.
- 제2호 자펀드를 이끌어 나갈 운용사는 1차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), 2차(발표평가, 출자심의회) 평가를 거쳐 '경남벤처투자·제피러스랩'이 선정되었으며,
 -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·기술성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.
 - 특히, 건설·교통·물류 분야 등의 혁신기술 뿐만 아니라, 자율주행차, 수소차, 드론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도 투자할 예정이다.

-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(주)경남벤처투자·(유)제피러스랩 (055-606-0014, knvi@knvi.co.kr)으로 문의하면 된다.
- '20년에 결성한 제1호 자펀드는 현재까지 11개 기업에 약 113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으며,
 - '22년에도 정부출자금 200억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추가로 340억 원 이상 조성할 예정으로, '27년까지 총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국토교통부는 혁신펀드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·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
- 국토교통부 김현정 정책기획관은 “중소·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 회복을 위한 적절한 투자 지원”이라며,
 - “‘국토교통 혁신펀드’가 그동안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토교통 신산업 중소·벤처기업들의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업 성장지원팀 박지은 사무관(☎ 044-21-326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